

# 전남 1500억 둑 높이기사업 '남의 잔치'

나주댐 동부·담양댐 롯데건설·장성댐 한양 선정

동부, 덤펑 논란에 지역업체 40% 공동도급 외면

1500억원대 전남지역 둑 높이기 사업이 수도권 건설업체의 잔치로 막을 내렸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 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지역 둑 높이기 사업 토목공사 단위 입찰 결과, 장성댐은 한양(인천), 나주 댐은 동부건설(서울), 담양댐은 롯데 건설(서울) 등 3곳 모두 수도권 건설업체가 선정됐다.

추정금액 40억원의 나주댐 둑 높이기 단위 공사는 지역업체인 남양건설

을 제치고 서울의 동부건설이 차지했다. 동부건설(40%)은 GS건설(27%·서울)과 삼한기업(10%·서울), 금호산업(13%·전남), 새천년종합개발(10%·전남)과 손을 잡고, 남양건설과 협진중공업 컨소시엄을 제쳤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남양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재기의 밤판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남양건설은 시업은 기술평가에서 55.06점으로 동부건설(49.96점)을 크게 앞섰지만,

가격평가에서 동부건설(40점)에 7.72점 뒤쳐 분류를 삼켰다.

특히 동부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낙찰률이 67.89%에 그쳐 덤펑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이 진행된 장성댐의 낙찰률이 90.00%, 담양댐 99.93%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낮다.

또 농어촌공사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했지만 동부건설은 의도했다. 지역업체 지분은 금호산업과

새천년종합개발의 23%다.

한양(30%)은 포스코건설(30%·경북), 보성건설(20%·전남), 동광건

설(10%·전남), 덕흥종합건설(10%·전남)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대림산업컨소시엄을 놀랐다.

한양의 장성댐 사업 진출은 대행사

들이 독식하던 던키시장에서 중견 건설업체가 대형사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양은 수도권업체지만 보성건설이 이주회사격이어서 지역 연고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대표건설사의

들려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던키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 85.4 대 1

광주 아파트 분양 열기 후끈

중·소형에 실수요층 몰린다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지고, 정약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당첨자가 아니면 분양받기 어렵다.

17일 금융결제원과 광주에 분양 중인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EG건설의 '봉선·주월 EG the 1' 3단지는 평균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아파트 84㎡(32평) C타입 3순위 모집에 2905명의 청약자가 몰려 85.4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청약 접수를 한 중흥건설의 '하남2지구 중흥S-클래스'도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84㎡(33평) B타입은 최고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분양 중인 LH 학지구 108㎡(42평)는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약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분양도 순조롭다. 평균 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봉선·주월 EG the 1' 주상

복합과 1단지 총 228가구는 지난 13~15일 분양계약을 한 결과, 81%의 계약율을 보였다.

EG건설은 18일 예비당첨자 계약과 19일 차순위 선착순 계약을 하면 100%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분양한 영무건설의 '수완 영무에다음'은 지난 13~15일 당첨자 계약과 16일 예비당첨자 계약을 한 결과, 1층 저층 가구까지 100% 분양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청약 1순위 마감돼 눈길을 끌었다.

서구 미륵동 한신공영의 '상무한신휴플러스'도 95% 분양 계약을 한 상태다.

최고 4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호반건설의 '수완2지구 하반 베르디움'도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처럼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의 달궈지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공급이 거의 없었던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 올 상반기 무역규모

### 5329억달러 사상 최대

167억달러 흑자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올해 상반기 5329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67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관세청이 집계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2% 늘어난 2748억달러, 수입은 26.6% 증가한 2581억달러였다.

수입이 작년보다 550억달러 정도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1년전(175억달러)보다 8억달러 줄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을 더한 교역규

모는 2008년 상반기(4348억달러)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무역액은 1조1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식경제부도 연간 수출입 목표치를 수출 5570억달러(당초 5130억달러), 수입 5280억달러(4880억달러), 무역수지 290억달러(250억달러) 흑자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상반기 수출은 석유제품(71.1%), 선박(30.9%), 철강(30.7%), 승용차(30%), 기계류(29.8%), 수입은 광물(55.1%), 원유(47.4%), 의류(37.9%), 비철금속(36.6%)의 증가폭이 커졌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644억달러), 미국(279억달러), 일본(190억달러)이 상위 1~3위에 올랐고 수입은 중국(431억달러), 일본(342억달러), 미국(222억달러), 사우디(179억달러) 순이었다.

무역조이는 중동(-408억달러), 일본(-152억달러), 호주(-87억달러) 등이 많았다. 한편 6월 한달 수출은 478억달러, 수입 449억달러로 2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작년 2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광주 LED업체인 태종씨앤아이 등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10개 LED 기업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광산업진흥회 제공〉

## 광주 LED 응용기술 러시아 진출

태종씨앤아이 등 10개 기업

LED식물공장 등 광주 LED(발광ダイオード) 응용 기술이 러시아 지역에 진출한다.

17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LED업체인 태종씨앤아이·광주인탑스 등 10개 LED 기업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등) 지역 4개국에 시장개척단으로 방문, 수출상담회와

LED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LED식물공장시스템 선도기업인 광주 태종씨앤아이는 우크라이나의 LLC사와 해조류 연구용 LED시스템 제작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쌍트 빼 째르부르그에 위치한 LED페키징·LED조명 등을 생산하는 옵토곤사는 광주인탑스와의 협력을 위해 700km가 넘는 거리에서 모스크바 행사를 찾아오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광산업진흥회는 4개국별로 LED조명 조립공장 건립과 공동 생산이 가능한 파트너 밭굴에 성공해 러시아·CIS지역의 거점을 확보했다.

조규종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오는 10월4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에 이번 러시아·CIS지역 수출상담회에서 발굴한 유력 바이어 20여명을 초청, 회원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50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4 19 21 23 31	1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990,391,625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8,540,931	34
3 5개 숫자 일치	1,475,458	1,349
4 4개 숫자 일치	50,000	67,461
5 3개 숫자 일치	5,000	1,113,967
/연합뉴스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냄다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태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릴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증·대인동 소방서면허

##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m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 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월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지 희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회동, 광주간도로변, 저하철역부근 대지11,520㎡(460평) 3.3m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동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원

▶ 용동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학정동, 4층건물, 월10실, 투룸3실, 쏘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 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매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금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